

# 자율관리어업

## & 수산소식

The Fisheries Newsletter

(067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상호물산빌딩 A동 501호 Tel : 02)589-4604 Fax : 02)589-1500 www.korfish.or.kr

발행인 : 회장 김영규 ■ 기사·편집 : 자율관리팀

###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 ...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성황리 개최

10월 27~28일 강원 동해시에서, 전국 공동체 어업인 2,300여명 참여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지난 10월 27~28일 1박2일간 강원 동해시 동해체육관과 동해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어업공동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전국대회에는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 김영규 한국수산업회 회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2,300여명의 공동체 어업인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7일 오후 2시에 열린 기념식에서는 올해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충남 태안 곰섬공동체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것을 비롯, 모두 23명이 정부 표상을 받았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동서남해에서 취수해 온 바닷물 합수식을 갖고, 합수된 바닷물에서 최근 완전양식에 성공한 명태를 풀어 넣는 공동체 '화합' 퍼포먼스도 펼쳤다.

이밖에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혁신결의문 낭독과 올해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곰섬공동체의 성공사례를 영상으로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28일에는 동해그랜드호텔에서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임원들과 회원들이 모여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에서는 우수공동체 사례발표와 함께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동체 어업인들의 연수 발표회가 별도로 마련됐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정착과 어업인의 참여 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개최돼 오고 있다.



△ 10월 27일 강원 동해시 동해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기념식에서 자율관리어업 전국 시·도 회장들이 손을 맞잡고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 10월 28일 동해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공동체 사례 발표회를 많은 공동체 어업인들이 경청하고 있다.

### 자율관리어업인 혁신결의문



우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일동은 급변하는 어업환경과 한·중 FTA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스스로 혁신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어업·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어업의 진흥을 위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개발하고 변화와 혁신의 미래어업 공동체 창조에 적극 앞장선다.

**하나.** 어업질서 확립과 불법조업 근절은 나부터 실천한다.

**하나.** 우리 바다, 우리 강, 우리 어족자원은 우리가 지킨다.

자율관리어업이란 수산자원 관리와 불법어업 금지 등을 위해 스스로 규정을 만들고 지키면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으로, 참여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2년 79개소에서 2015년 1,129개로 14배나 증가했으며 7만여명에 달하는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업인들이 지금 우리 어촌사회의 변화의 주역이 되고 있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통해 어촌 공동체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 새롭게 도약하는 전기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가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실현하고 어촌을 창조 경제의 장으로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제13회 전국대회 정부포상자 명단



윤학배 차관이 태안 곰섬공동체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대통령 표창〉 △충남 곰섬공동체(단체) △이병문 강원 동산공동체 위원장 △문묘연 전남 동강내수면공동체 위원장
- 〈국무총리 표창〉 △경남 본촌공동체(단체) △고상종 제주 신창공동체 위원장
-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전남 동울공동체(단

- 체) △심명수 전북 비응도공동체 위원장 △방봉남 충남 빛개공동체 위원장 △이성과 강원 강릉시계지망공동체 위원장 △김종원 전남 내동공동체 위원장 △박봉수 울산 판지공동체 위원장 △서성곤 경남 육지서부공동체 간사 △공정열 충남 운정공동체 위원장 △최정열 전북 서번제내수면공동체 위원장 △장운용 부산 민락공동체 위원장 △문준홍 인천 내리공동체 위원장 △황중삼 경남 술상공동체 위원장 △장현호 전남 청석공동체 위원장 △왕지희 수협중앙회 3급 △김동윤 강원도 동해시 해양수산과 주무관 △한성민 제주도 서귀포시청 주무관 △박부영 충남 태안군청 주무관 △이병희 경북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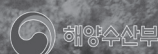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 3.0



아직도 어린물고기를 잡아 드시나요?

내일을 위해 어린물고기가 충분히 크고 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일을 놓으면 몇 만 마리의 물고기가 태어납니다.  
한번만 참으면 어린물고기는 더 큰 가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 자율관리 어업인 화합의 한마당 ... 동서남해 합수된 바다물에 명태 투입 '화합' 퍼포먼스



윤학배 차관의 격려사.



김호연 연합회장의 대회사.



전국대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전국 연안에서 가져온 바닷물을 합수해 명태 치어를 방류하는 '화합'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제13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10월27일부터 1박2일간 강원 동해체육관과 동해그랜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행사 첫날인 27일 12시부터 동해체육관 행사장에는 어업인들은 태운 버스가 속속 도착했다. '어업공동체,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전국대회에는 전국에서 2,300여명의 공동체 어업인과 자율관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는 자율관리어업 활동 사진과 각종 수산 관련 홍보부스가 마련돼 어업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으며, 내빈 입장과 더불어 공식행사가 시작됐다. 행사를 주관한 권영환 자율관리어업 강원도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김호연 연합회장의 대회사, 심규연 동해시장의 환영사,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의 대통령 축하메시지 대독이 이어졌다.

자율관리어업 정부유공자 포상에서는 올해 자율관리공동체 평가에서 최우수와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충남 곱섬공동체와 경남 본촌공동체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 모두 23명이 정부 포상을 받았다. 포상은 윤학배 해수부 차관이 전수했다.

이어 2016년 공동체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충남 태안 곱섬공동체의 성공사례가 상영되고, 자율관리어업인 혁신결의문이 낭독됐다. 혁신결의문은 자율관리 어업인들이 스스로 혁신하여 우리 수산업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있다.

다음은 오늘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합수&풍어기원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내빈들이 단상에 도열한 가운데 전국 13개 지역회장이 각 지역에서 가져온 해수를 한 곳에 모아 합수된 수조에 살아있는 명태 치어를 투입하는 퍼포먼스로, 어업공동체의 새로운 도약과 화합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부 행사를 마친 뒤 오후 4시부터는 지역별 경품추첨에 이어 초청가수의 축하공연과 지역별 어업인들의 장기자랑으로 흥겨운 어울림 한마당을 펼쳤다.

둘째날 어업인들은 동해그랜드호텔에 모여 우수공동체 및 해외연수 사례발표에 이어 자율관리어업연합회 임원진과 회원간에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사례발표는 올해 공동체 평가위원회에서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충남 태안 곱섬공동체의 성공사례를 민연이 사무장이 발표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스페인과 일본, 노르웨이에 대한 해외연수 내용을 연수에 참석한 공동체 위원장이 직접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례발표에 이어 연합회 임원진과 회원들이 공동체 활성화를 주제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제주 종달공동체 김홍철 위원장이 노르웨이 연수소감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국대회가 열리는 동해체육관 앞에는 수산 관련 각종 홍보부스가 설치돼 어업인들의 눈길을 모았다.

### 제13회 전국대회 기관 단체장 포상자 명단

**〈국립수산과학원장 표창〉** △충북 한수내수면공동체 박종유 △충남 만수동공동체 전제능 △경기 석천리공동체 지원주 **〈한국수산회회장 표창〉** △제주 우도공동체 정현우 △경기 양평내수면공동체 김남성 △충북 문의공동체 이찬희 △강원 묵호유지방공동체 김영호 **〈수협중앙회회장 표창〉** △강원 의암호내수면공동체 김상근 △제주 하예공동체 원상철 △충남 대야도공동체 정현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표창〉** △전북 아미도공동체 이상길 △경남 중화공동체 이상수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회장 공로패〉** △충남 수산관리과 강중순 △부산시 수산지원연구소 김준태 △경남 수산기술사업소 황병두 △전북 해양수산과 신병호



초청가수의 축하공연 모습.



공동체 어업인들의 흥겨운 장기자랑.



###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 오는 12월중 평가위원회 통해 최종 결정

### 11월 10~22일 7개 공동체 대상 현장점검 실시



올해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신청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단이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현장 점검단이 공동체사업 부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2016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대상 공동체를 오는 12월중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는 선진등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총 10억원(국비 50%, 지자체 40%, 자부담 10%)내의 사업비를 지원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지원제도이다. 2010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총 19개소가 특별사업비를 지원받아 공동체의 숙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회 관계자 및 공동체 평가위원 등으로 현지 점검단을 편성, 선진공동체 특별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제출한 7개 공동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7개 공동체는 △강원 수산공동체 △경기 전곡리공동체 △경남 통영연안자망공동체 △충남 예당내수면공동체 △전북 하전공동체 △전북 치도공동체이다.

현장점검에서는 특별사업비 신청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행능력, 공동체의 미래발전 가능성 및 육성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한국수산회,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 11월에 남해군 강진만 연안통발공동체 등 5개소 대상



경남 남해군의 신규공동체인 강진만 연안통발공동체와 유포공동체 회원들이 활성화 교육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수산회는 자율관리어업 신규공동체의 우수공동체 벤치마킹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수산회는 지난 10월 까지 8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11월에는 5개소(경남 남해군의 강진만 연안통발공동체 및 유포공동체, 경남 창원 진동복합어업공동체, 충남 보령시의 학성선주협회 및 고삼공동체)를 대상으로 자율관리어업 필요성 및 정책방향, 우수공동체 사례발표 및 현장견학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 자율관리어업 내수면공동체 활성화 교육 실시



11월 23일 강원 원주 KT원주아카데미에서 열린 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에 대한 활성화 교육에서 한국수산회 양문주 부장이 교육진행을 하고 있다.

한국수산회는 지난 11월 23일 강원 원주 KT원주아카데미에서 내수면 자율관리어업공동체를 대상으로 내수면 자원 증강 및 활용방안에 대한 교육

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지 않은 내수면어업계 소속 어업인들도 참여, 자율관리어업 정책방향 및 공동체 구성 필요성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한편 경남 창원의 동읍내수면공동체와 전남 나주 공강내수면공동체는 각각 저수지와 강을 이용한 내수면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 자율관리공동체 컨설팅 및 컨설턴트 활동

#### 전문분야 컨설팅 안내

자율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문분야 컨설팅이 실시되고 있다. 기 참여 공동체 중 특정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체에 대하여 해당분야 전문가가 공동체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컨설팅이 필요한 주요 전문분야로는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분야, 체험시설

등 관광과 연계된 분야, 공동체 경영분야, 공동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유통분야 등이 있으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희망분야에 대하여 최대한 지원하게 된다.

전문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한 공동체에서는 언제든지 지자체 수산사무소를 통하여 한국수산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타당성 검토 후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연락처 : 한국수산회 자율관리팀(전화 02-589-4604, 4609)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 교육 천명길 인천·경기담당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인천·경기담당 천명길 컨설턴트는 지난 10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흘곶공동체 마을회관에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가 주관하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흘곶공동체 구성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자율관리어업 추진배경을 비롯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

또, 지난 10월 25일 경기남부수협 서신지점 회의실에서 경기도 화성시 김양식 자율관리공동체 구성원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확산교육을 실시했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가 주관한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에서 천명길 컨설턴트의 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교육 오용대 부산·울산담당 컨설턴트

자율관리어업 부산·울산담당 오용대 컨설턴트는 지난 10월 24일 울산시 울주군 강양선주협회 사무실에서 울산광역시청이 주관하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교육을 강양선주협회공동체 구성원 3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어선어업 공동체의 육성사업비 집행 가능한 사업을 설명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식교육의 중요성 등을 교육했다.



오용대 컨설턴트가 어선어업공동체 활성화방안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모습.



우수공동체 탐방 / 제주 신창자율관리어업공동체

# 철저한 자원관리로 제주지역 공동체 '모범' ... 제주바다목장 활용한 제2의 도약 꿈꿔



신창공동체 고상종 위원장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에 위치한 신창자율관리공동체(위원장 고상종·54)는 제주 특유의 아름답게 펼쳐진 해안선과 바다로 바로 이어진 용천수, 인근에 자리한 차귀도·비양도 등 다양한 볼거리로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특히 이곳에서 주로 채취하는 톳, 우뭇가사리 등 해조류는 제주 서부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수십년간 이어져 온 무분별한 채취로 자원이 줄어들고, 어장 황폐화의 조짐을 보이자 어촌계원들의 중지를 모아 지난 2011년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게 됐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어촌계원들을 설득해 자원관리에 대한 규약을 정하고, 공동작업에 나서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하지만 자율관리어업 참여 이후 연 100만원대의 임대료만 받고 일부 어촌계원에게 임대해 준 어촌계 소유의 정치망을 공동체에서 직영함으로써,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연 2000만원대의 소득을 올리는 등 '협동'의 힘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신창공동체 회원들이 공동으로 톳 채취작업을 하고 있다.



공동체 회원들이 소라 채취 후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신창공동체에 설치된 제주바다목장 생태체험장 입간판.

이에 힘을 얻은 신창공동체는 본격적인 자원조성에 힘을 쏟았다. 소라 TAC(총허용어획량)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전복과 홍해삼, 솜벵이 자원증강을 위해 정부의 육성사업비는 물론 자체자금을 투입해 종묘방류에 나섰다.

또한 톳이나 우뭇가사리는 1년에 한번만 수확하도록 해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라 등 패류가 산란·서식할 수 있는 어장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해 톳 생산량은 지난 2013년 21톤에서 2014년 72톤, 2015년에는 78톤으로 늘어나고, 우뭇가사리도 같은 기간 6톤에서 10여

톤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라의 경우 TAC 품목으로 채취 물량이 정해져 있어 신창공동체는 지난해 15톤 정도를 채취하는데 그쳤다. 이 정도의 물량은 해녀들이 며칠만 작업해도 소진될 정도여서, 자원량 재평가와 함께 TAC 할당량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창공동체는 전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연 5회 이상 바다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해안으로 대량 유입된 맹꽁이 모자반을 수거해 지역 농업인의 밭에 퇴비로 이용케 하는 등 창조적인 방법으로 마을어장 환경개선에도 힘

을 쏟고 있다.

하지만 현재 150여명에 이르는 어촌계원 중 패류 채취 작업이 가능한 해녀 수는 50여명 수준. 그나마도 제주의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해녀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돼 공동체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신창어촌계장을 맡아 자율관리어업 정착은 물론 신창공동체가 제주지역 공동체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하는데 구심점이 되고 있는 고상종 위원장은 향후 신창공동체의 성장동력으로 관광어촌을 꼽고 있다.

신창공동체를 포함한 한경면 해안 지역에 정부에서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10여년간 시설한 제주바다목장사업이 지난 2013년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바다목장에는 수중 테마공원을 비롯, 육상 생태체험장, 체험낚시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관광수요와 관광소득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신창공동체는 인근 학교와 자매결연 후 매년 전통어로방식인 원담 고기잡이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마을어장의 일부지역을 개방해 관광객에게 어촌체험 활동의 기회도 제공해 오고 있다.

신창공동체는 이같은 유리한 입지적 여건을 활용, 행정당국에 어촌체험마을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주바다목장을 활용한 소득창출 방안에도 지혜를 모으고 있다.

## 전국낚시어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



11월 14일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전국 낚시어선 어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인천 연안부두에서 낚시어업인 600여명 참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4일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전국 낚시어선 어업인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낚시어선 해상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낚시어민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어업인들이 낚시안전을 위한 결의를 한 후 행사에 참석한 어업

인들, 잠수협회 회원들이 함께 수중쓰레기 정화활동을 벌였다.

해수부는 지난해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를 계기로 구멍조끼 착용의무화, 낚시어선 승선인원 관리 강화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부 측의 노력과 함께 업계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번 자율결의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제주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사후관리실태 점검

제주시는 11월 4일부터 30일까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지원받은 19곳 대상으로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체 육성사업 사후관리실태 점검은 19개 공동체 69개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물 및 구축물은 10년 이내 △차량·장비·선박 등은 5년

이내 △투석 및 종묘방류 등은 2년 이내 지원된 품목을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보조금 교부목적 위배여부, 시설물의 양도, 대여, 담보 제공 여부, 관리운영 상태 등으로, 현지조사를 거쳐 위반행위 및 부실운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 인천수산사무소, 2016년 어촌지도자협의회



인천시 수산사무소가 11월 23일 2016년 제3회 어촌지도자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는 관내 어촌계장 58명과 수산

단체지도자 13명,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수산사무소는 겨울철 수산시설 및 양식장 관리요령, 한국의 개체 굴 양식업 현황과 비전, 수산자원연구소의 개불을 이용한 양식어장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기술교육과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 ‘우리 양식기술로 성공한 연어 식탁에 오른다’

## 아시아 최초 외해가두리 생산 연어 첫 상업적 출하

해양수산부는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의 유어장과 낚시터의 관리·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돌고래호 낚시어선 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기준과 관리를 강화한데 이어 해양레저 인구의 증가 등으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유어장, 낚시터에 대하여도 안전점검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2015년 말 기준으로 허가등록된 낚시터 733개소, 유어장 177개소 등 총 91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수상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해수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낚시업중앙회, 낚시명예감시원이 공동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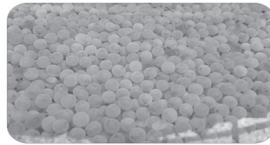
점검 기간에는 유어장과 낚시터의 안전 시설 설치, 보험 가입, 편의시설 구비 등 시설기준 충족 여부와 사행행위 등을 집

중적으로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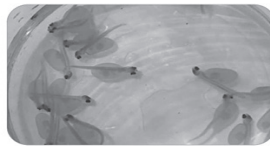
특히, 수상시설물은 부력체, 상부구조물의 재료와 구조, 보호 장치 및 탈출 설비 등의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위법 행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지도 및 계도,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돌고래호 사고 이후 낚시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유어장과 낚시터도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여 낚시인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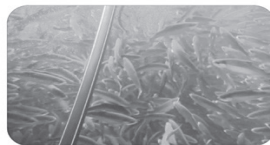
한편, 해수부는 점검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자, 업주,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캐나다에서 수입한 연어 알(수정란)



수정란에서 갓 부화한 연어 치어



가두리 입식 초기의 1kg 미만 연어



지난해 10월 성장도 체크를 위해 잡은 성어(5kg 내외)

### 2017년산 김 시설량 8% 증가

#### 생산량은 올해 수준 전망

해양수산부는 2017년산 김 시설량이 91만3천 책으로 올해 시설량(84만 8천 책)보다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역대 최대치로, 김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양식 어가들의 시설 설치 의향이 예년보다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내년에 수확 예정인 김은 10월 초 내습한 ‘태풍 차바’와 잦은 비의 영향으로 포자 부착 저조 등 채묘 상태가 좋지 않아 시설량 증가로 내년도 생산량은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금년 10월에 생산한 잇바디돌김은 태풍 등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해 지난해(1,940원/kg)보다 31% 높은 2,544 원/kg에 거래되었으나, 김밥 김 등 일반 김 생산량은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돼 일반 김의 위판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첨단양식 박람회 · 미래양식포럼’ 개최

## 수산종자 강국 도약하나... 국내산 ‘터봇’ 종자 첫 중국 수출



11월 10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16 해양수산 양식 박람회 개막식 모습.



11월 11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미래양식포럼 창립 기념식이 열렸다.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양식업을 소개하는 국내 최초의 박람회인 ‘2016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 박람회’가 11월 10~11일 양일간 서울 중구 동호로 장충체육관에서 열렸다.

‘씨팜쇼 2016’은 정보기술(IT), 생체기술(BT)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미래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식산업을 소개하는 행사로, 이번 박람회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등 양식 선진국들의 글로벌 기업들을 포함하여 지자체, 업단체 46개 기관이 참여해 양식산업이 기존의 1차 산업에서 탈피해 첨단산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 함께 11월 11일에는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에서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시도 중인 양식산업 현황과 투자 촉진을 위해 ‘미래양식포럼’ 창립식과 심포지엄도 열렸다. 미래양식포럼은 첨단기술과 융합한 양식분야의 투자모델을 발굴하고 금융부문의 협력을 강화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초대회장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이 맡았다.

이날 포럼에서는 국내외 신기술과 모범 사례도 소개됐다. 세계적인 양식 기술 개발업체 아크바의 트로드 세베린센 부회장은 “한국의 양식 성공 여부는 태풍 등 자연재해를 양식기술과 ICT로 극복하는 데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업체인 비봉수산의 송기천 대표는 살균수조와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 바이러스 기생충의 양식장 유입을 막는 기술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터봇 우량종자 2만 마리가 11월 10일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됐다. 사진은 수출용 선박에 터봇을 싣고 있는 모습.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0일 국내 기술로 개발한 터봇 우량종자 2만 마리를 중국으로 처음 수출했다고 밝혔다.

‘터봇’이란 넙치류에 속하는 어종으로 20℃ 이하의 수온에서 자라며 성장이 빠르고 육질이 단단해 유럽과 중국에서 찜요리로 널리 소비되고 있다.

경상대학교, 영어조합법인 해연, 수산양식분야 연구개발 업체인 블루젠 코리아는 주요 터봇 시장인 유럽과 세계 1위 터봇 양식 생산국인 중국에 터봇 종자를 수출하기 위해 지난 4년간 37억원을 투입해 육종기술과 어미 사육관리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했다.

해수부는 24개 정부 핵심개혁과제에 해당하는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의 일환으로 수산 종자강국으로의 도약과 해외 수출용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를 중점 추진해왔다. 골든시드 프로젝트란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넙치류, 바리과, 전복, 김)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748억원이 투자된다.

이번 수출은 2013년 프랑스에서 수입한 어미로부터 생산한 종자를 국내 기술로 육종해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해수부 설명이다.

해수부는 이번 터봇 수출을 계기로 국산 넙치류 종자의 해외시장 본격 진출 추진을 위해 페루 현지에 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산종자 관련 세계시장은 2011년 기준 157억 달러 규모로, 국제적으로 우량종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 관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직송 수산물 전문 쇼핑몰 피쉬세일 [www.fishsale.co.kr](http://www.fishsale.co.kr)

식탁 위의 건강한 먹거리 피쉬세일 이 차려드립니다.

어업인 수산물 인터넷판매 한국수산회가 도와드립니다.



# 서울 명동에서 싱싱수산물 대축제 개최 수산회 주관, 전국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거 참가



11월 3일 서울 명동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을 비롯, 소비자단체 및 수산단체장들이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펼치고 있는 모습.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전국 이마트 147개점, 롯데마트 116개점, 홈플러스 141개점과 GS 리테일 슈퍼 295개점, 수협 바다마트 12개점, 온라인 수협쇼핑은 품목별로 최대 50%

한국수산회는 지난 11월 3일 명동에서 '싱싱코리아! 싱싱수산물 대축제 (대한민국 바다를 세일합니다)' 행사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양수산부가 후원한 '싱싱코리아! 싱싱수산물 대축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콜레라 발생 등의 여파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수협중앙회와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가 참가해 11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진행됐다.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판매했다. 서울 명동에서 열린 개막식 행사에는 넉치, 우럭, 전어구이, 김탕, 고등어 스낵 등 우리 수산물을 맛보는 시식행사가 열려 서울시민과 서울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 각 마트 임원진, 해양수산 관련단체장, 소비자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하여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앞장섰다.

##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창립총회 가져

### 11월 3일 수협 강당에서 ... 여성어업인 구심체 역할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지난 11월 3일 수협 2층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 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위상 강화를 위해 (사)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회장 신황숙)가 공식 출범했다. 한여련은 지난 11월 3일 수협 강당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 이인제 전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여성 어업인, 수협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한여련은 앞으로 △어업 및 어촌사회 발전 비전 제시 △여성 어업인간 연대 의식 고취와 구심점 역할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수산자원 관리 및 어촌 정주여건 향상 △교육 및 후계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996년 10월 10일 '수협 부인부'로 출발한 한여련은 현재 회원 8,100명을 둔 여성 어업인 단체로, 20년만에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한여련은 앞으로 설립등기 등을 거쳐 내년부터 공식 출범한다. 신황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우리 수산업계는 바다모래 채취, 콜레라 파동, 고등어 미세먼지, 불법 중국어선, 김영란법 시행 등 부정적인 사건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여성 어업인의 권익신장은 물론 수산업계 전반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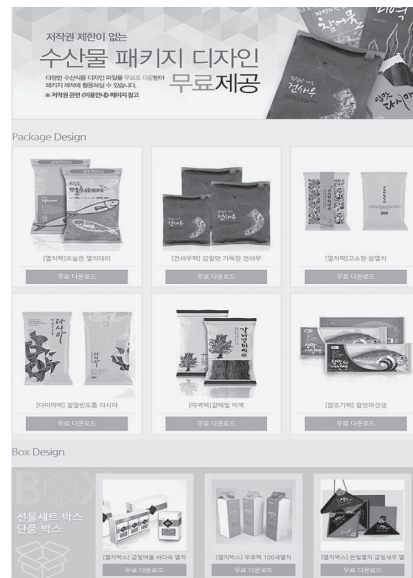
###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생산어민 874명 대상

해양수산부는 고등어·오징어·참다랑어 3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17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본 품목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수부는 어업인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대상 품목 등 63개 품목의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FTA 체결 이전부터 3개 품목을 생산해온 어업인 874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은 시도별 자금이 배정된 이후 12월 초까지 해당 어업인에게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급 후에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당 지급된 직불금은 환수 조치하는 등 이행 점검도 할 방침이다.

## 한국수산회, 수산물 포장지 디자인뱅크 구축

### 주요 수산물 68종 등록 ...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가능



한국수산회가 구축한 '피쉬디자인' 홈페이지 화면 모습

한국수산회는 수산물의 고급스런 포장용도를 통한 판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수산물 포장지 디자인 뱅크인

'피쉬디자인(www.fishdesign.co.kr)'을 개설, 어업인 지원에 나섰다. 여기에는 멸치, 미역, 다시마, 새우, 김, 참조기, 굴비,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의 포장 디자인이 품목별 2~3종씩 총 68종 등록돼 있다. 디자인에 익숙치 않은 어가에서는 이곳에 접속해 필요한 디자인 파일을 무료로 다운받아 포장지 제작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디자인 뱅크의 다운 횟수는 1,200여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제 이를 활용해 포장지를 제작한 어가가 수십 곳에 달하고 있다. 한국수산회 관계자는 수산물 포장 디자인의 무료 제공으로 영세 어가의 디자인 개발비용 절감뿐 아니라 수산물 판매촉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태안 대천항에서 어선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 실시



충남 대천항에서 어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이 실시됐다.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본부는 15일(화)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일원에서 해양수산부, 수협, 서해어업관리단, 보령시, 보령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어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선안전의 날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가두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의 끈, VHF-DSC로 지켜내자"라는 슬로건을 외치며 "V-ON" 운동에 어업인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날 캠페인에서는 어업인들이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 결의문 낭독, 구명조끼 착용, 소화기 사용법 시연 및 어업인 체험, 구명뗏목 해상시연 등을 함께 진행했다. 특히,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발생 개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어업인들에 대한 소화기 사용법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비상 시 퇴선요령 등이 담긴 시청각 자료를 상영했다.



# 해양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 10주년 기념행사

## 화성 백미리공동체 이창미 사무장, 신지식인 우수상 수상



해양수산 신기술 동향과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해양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가 지난 10월 27일 부산그랜드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해양수산부가 2016년 유통가공, 양식, 어촌관광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12명을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은 경북 포항의 김성호 남양수산 대표에게, 최우수상은 다양한 맛의 굴 통조림을 개발해 일본 흡소핑시장에 진출한 경남 대일식품(주) 이영만 대표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경기 화성 백미리 공동체(어촌체험마을)의 이창미 사무장이 수상했다.

이 사무장은 뛰어난 친화력과 리더십으로 마을주민 전체를 체험마을 운영에 참여시켜 마을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에 기여했다. 또 체험마을을 영 노하우를 이웃 마을에 전수하는 등 주변 어촌관광활성화에도 큰 몫을 했다.

이밖엔 민동성(전남 영백염전(주) 대표이사), 연구식(경북 아무르콜라겐(주) 대표이사), 김정현(전북 칠보수산에스푸드 대표), 권영화(강원 (주)한백푸드 이사), 추기영(전남 해창수산 대표), 김상국(울산 초록나라 가상국 대표), 정원주(경남 빅마마씨푸드(주) 대표 이사), 이충원(전남 덕동리 어촌계장), 박병찬(전남 땅골어촌계)씨 등을 2016년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

한편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해양수산 신지식인이 한 자리에 모여 신기술 동향,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는 제10회 해양수산 신지식인학술대회를 개최해 선정된 신지식인 12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 지속가능 수산업 “세계 수협인의 성명서” 채택

## ICA 수산위원장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김임권 ICA수산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5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ICA 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세계 수협인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한국 수협의 주도로 세계 수산인들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무분별한 어획을 지양하고 특히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불법조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김임권 위원장(한국 수협중앙회 회장)은 11월 15일 인도 뉴델리에서 집행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열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세계 수협인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ICA 수산위원회 가입 23개국 협동조합들은 성명서를 통해 급격한 수산자원 감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무분별한 어획 지양과 어촌공동체 육성을 통한 수산업 발전에 나설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

#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선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 설명



수협중앙회 속초어업정보통신국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입어선에 대한 위반조업방지 및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수협중앙회 속초어업정보통신국은 지난 11월 17일 거진채낚기협회 사무실에서 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입어선에 대한 위반조업 방지 및 준법교육을 실

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EEZ 입어선 선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조업일지의 구체적인 가입절차, GPS 항적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들을 설명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속초어업정보통신국장은 입어 및 조업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2016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 김성호 남양푸드 대표

## 오징어빵 개발, 수산물 소비촉진 기여



김성호 씨는 수산물의 특성인 일시 다획과 가격 불안정, 연중 안정적인

포항 남양수산·남양푸드 김성호(46) 대표가 해양수산부에서 2016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을 수상했다.

수산물 소비를 위해 수산물 특유의 맛을 살린 오징어빵과 문어빵을 개발해 특허·디자인 등록했다. 특히 푸드 트럭과 체인점 개설로 수산물 소비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이번에 선정된 12명 중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씨는 경북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으로, 오징어채낚기업 어선을 운영하고 있다.

## 남해 연안통발-연안자망

# 어업자협약 체결 통해 조업 갈등 해소



남해 연안통발어업인과 연안자망어업간 물메기 조업을 둘러싼 갈등 해소를 위해 11월 18일 양측 대표들이 동해어업관리단 중재하에 어업자협약을 체결했다.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1월 18일 남해연안통발어업과 남해연안자망어업 간 갈등이 어업자협약 체결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남해연안통발어업자들은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남해군 남동방 해역(98, 5104해구 일원)에서 연안자망과 물메기를 두고 경쟁조업을 벌임으로써 어구가 겹치는 등 분쟁이 발생, 2014년 12월 동해어업관리단에 어업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이후 동해어업관리단은 동해

어업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재까지 어업인간담회 등 총 8회의 조정활동으로 양측 합의를 통해 협약해역 및 기간 등을 설정, 조업시 분쟁을 최소화해 상생할 수 있는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당사자 대표로 구성된 자율협의회를 별도 구성해 필요시 양측 합의 하에 협약내용을 수정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회에서 추후 어업인 간 자율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정된 바다공간과 수산자원을 경쟁적으로 이용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업분쟁은 불가피하지만 어업분쟁조정을 통해 양업계 간의 신뢰가 확산된다면 향후 어업인 간 자율적인 조정의 발판이 되어 어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09년 설립된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24건의 어업조정 사건에 대해 11건의 협약체결과 함께 총 20건의 조정종결을 했고, 현재 4건의 분쟁을 조정 진행 중이다.



### 수산정책실장에 서장우 수산정책관 승진 임명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 서장우(55) 수산정책관이 지난 11월 7일 승진 임명됐다. 서장우 신임 수산정

책실장은 경남 출신으로 경남고, 부산수대 수산교육과를 거쳐 전남대 수산과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기술고시 22회로 해수부에 들어온 뒤 양식산업과장, 수산개발과장, 어업자원정책관, 수산정책관 등 수산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수산행정 전문가이다.

### 10월까지 수산물 수출 17.5억 달러, 전년 대비 10.2% ↑ 참치, 김 수출 증가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두 자릿수 증가

올 1~10월까지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 동기 15억8,900만 달러보다 10.2% 증가한 17억5,2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수산물 수출액은 1억 8,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1억 6,000만달러보다 16.7% 증가하며, 올 5월 이후 6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처음 수출 3억 달러를 달성한 김이 10월까지 3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작년 수출이 저조했던 오징어

도 누적 1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1위 품목인 참치는 수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동기보다 14.5% 증가한 4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10대 수출대상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인 유럽연합(EU), 중국, 아세안(ASEAN)으로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7%(1억2,000달러), 25.0%(3억2,000달러), 11.2%(2억8,000달러) 증가했다. 또 작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던 최대 수출국 일본도 8.1%(6억1,000달러) 증가했다.

### 해수부, 11월 어식백세 수산물 '참치·홍합' 선정

〈11월의 어식백세 수산물〉



참치



홍합

해양수산부는 살이 담백하고 부드러운 참치와 시원한 국물 맛이 일품인 홍합을 11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 발표했다.

참치는 고등어, 꽂치와 비슷한 종류

로 단백질과 지질이 높은 고에너지 식품이며 살이 부드럽다. 또한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 심장병 등 성인병 예방에 탁월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지방에 특유의 단맛을 내는 글리세리드가 함유돼 농어목 고등어과 어류 중 유일하게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는다.

홍합은 타우린, 글리신, 글루탐산, 아르기닌 등의 유리 아미노산과 숙신산, 젖산 등 유기산이 특유의 맛을 낸다. 홍합에 함유된 셀레늄과 비타민에 이(A)는 체내 산화과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노화방지와 더불어 항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참치, 홍합은 11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2016년 11월 어식백세 제철수산물

**참치** DNA가 동맥을 두꺼워지게 하는 지방 함량이 낮아 고지혈증 예방에 도움

**홍합** 육질은 부드러우면서도 씹을수록 탄탄한 식감을 자랑하며, 국물 맛도 일품

## 어업인 자율적 자원관리방안 모색 나서 국회 김도읍 의원실 주최, 정책 토론회 개최

어업인이 주도하는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화됐다.

11월 28일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어업인 자율적 수산자원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정부 주도의 어업관리 방식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어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어업인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부경대학교 이상고 교수와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이창수 연구원이 주제를 발표하고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한 손재학 국립해양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이상고 교수와 이창수 연구원은 각각 '우리나라 어업관리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과 '수협의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 방안 및 정부의 재정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부경대 김병호 교수, KMI 이정삼 어업자원연구실장, 한구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임정수 사무총장,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정연송 조합장,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김현용 연구실장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및 연구원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가해 수산자원 자율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수산자원 문제를 더 늦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어업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 (사)한국자율관리어업 연합회 소식란

#### 순회교육 및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 실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 순회교육 및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별 순회교육은 11월 23일 전남 영암 내4리 다목적 마을회관에서 영암지역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은 11월 22일 충남 예산 예산대내수면공동체에서 경기 여주내수면공동체 구성원 20명을 대상으로, 11월 21~22일 양일간 강원 양양 수산공동체에서는 부산 동암공동체 구성원 3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자율관리어업연합회 김호연 회장이 11월 23일 영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교육하고 있는 모습.



11월 21일 강원 양양 수산공동체를 방문해 성공사례 전수 현장교육을 받은 부산 동암공동체 회원들의 단체사진.

#### 자율관리어업연합회 11월 임시 이사회 개최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는 지난 11월 21일 연합회 사무실에서 11월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김호연 연합회장을 비롯, 9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 및 개선방안을 중점 협의했다.